

第68回 OPEC 總会結果와 展望

지난 7월 18, 19일 양일간 헝가리에서 열렸던 OPEC(石油輸出機構) 第68회 總会是 회원국의 總生産량(1,750萬 B/D), 基準原油價格(29\$/B), 國別생산량당량의 現狀유지를 결정했다. 채택된 聲明이 「세계의 原油市場은 안정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표명한 점에 OPEC 内外의 미묘한 정세가 端的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 같다. 이는 OPEC 創設 이후,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共通認識을 산유국간에 굳히는 한편, 소비국내부에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는 原油價格인하에 대한 기대를 해소시키기 위한 「政治的 聲明」이기도 하다.

금년 상반기는 OPEC로서 카르텔崩壞에 직면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減産協定の 범위내에서 자숙함으로써 기준가격을 간신히 지켜냈다. OPEC 聲明은 이와 같은 성과를 自讚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석유시장에 안정을 가져온 요인은 이 밖에도 몇가지가 있다.

소련, 英國, 멕시코등 非OPEC諸국의 OPEC 정책에 대한 同調, 메이저(國際石油資本)를 비롯한 세계 주요石油거래업자의 가격안정志向, 그리고 국제금융계의 석유가격하락에 대한 경계심등이 OPEC의 基準原油價格안정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의 大勢는 원유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석유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하는 문제는 하반기의 국제석유시장에서의 攻防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세계景氣의 回復基調과 소비국에서의 石油在庫의 감소등으로 공산권을 제외한 세계의 석유수요는 原油환산으로 하루 4백만~5백만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비국들이 원유가격상승이 필연적이라고 판단 在庫대입을 확대할 경우, 原油가격은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국들로서는 현재 배럴당 29달러로 상징되고 있는 石油價格이 天然가스, 石炭, 原子力등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市場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은가, 또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下向調整되어야 하는가 하는 가치판단을 따지게 될 것이다. 석유가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그 絶對水準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安定性이 있는가에 대한 음미가 중요하다. 우리 나라와 같이 所要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石油가격이 다른 에너지에 대해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진다 것은 아직 기대할 수 없다. 또 실제로 産油國이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에너지供給構造가 전환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사우디 아라비아의 야마니石油相이 제창하고 있는 「石油價格은 최소한 오는 85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는 소비국측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석유수요가 회복되어 原油價格인상 기운이 나올 때, 사우디가 增産등의 市場鎮靜化의 기능을 또 다시 발휘할 수 있을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의 동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金乾治·弘報室長)

OPEC 總会 聲明要旨

OPEC(石油輸出機構)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第68회 총회 聲明要旨는 다음과 같다.

1. 總会是 세계의 原油市場이 安定化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2. 需給均衡이 더욱 안정될 때까지 지난 3월 總会에서 결정된 하루 1천 7백 50만배럴의 생산량과 國別쿼터량과 가격에 대해 現狀을 유지한다.
3. 總会是 長期戰略委員會議長인 야마니 사우디 아라비아石油相이 제출한 보고를 검토했다. 그 결과, 앞으로 세계의 에너지 및 석유정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시키기로 확인했다. 次期總会에서 다시 長期戰略委員會의 보고를 검토한다.
4. 總会是 事務局長선출에 관한 토의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5. 次期 總会是 오는 12월 7일에 개최한다. *